

The Keyword XI.

'벽(wall)' - 사랑의 결핍은 내면안에 두려움의 성을 쌓게 합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진리이고, 진리는 자유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자유'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모든 것의 본질이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본질 된 하나님의 속성인 진리가 우리 삶에 실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재가 바로 '자유'이다.

2. 자유의 상태

[요한복음 8:32-26]

32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쩌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34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35 좋은 주인 집에서 영구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그 집에서 영원히 산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진리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쩌서 당신은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까?'(33절)의 질문으로 보아, 예수님은 질문했던 유대인의 상태를 '종'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종이다. (34절) 그러시면서 주인집에 사는 두 신분을 비교한다. 하나는 '종'의 신분, 다른 하나는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유의 '상태'를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자유의 '본질'을 말씀하셨다. 즉, 주인의 집에 사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누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진리'이다. 결국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했다.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야 자유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그 아들의 삶에 주어진 자유가 성도의 삶의 실재이다.

3. 누구?

성경은 어떤 일 보다는 누가 누구에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준다.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그 기적을 행하였는가? 그것은 보여지는 환경이나 일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의 주체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 행사 -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최하는가? = 가장 좋은 호텔에서 초호화의 행사가 무료여도 그 행사 주최측이 신천지라면 가겠는가?

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그 환경에 살고있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학대하고 수치를 주는 사람이라면 그 환경이 행복할까? (자살했던 조00 신문사 며느리 - 재벌가에 시집 갔지만 결국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행복은 없었다)

예) 그래서 결혼을 강조한다.

4.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은 결국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대한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사랑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관계'에 대한 기도였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로 하나 되었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첫째', 즉 '우선순위'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정리된다.

예)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 관계가 상해가며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형제들의 화목이다.

5. 죄는 관계의 깨어짐을 말한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버렸다. 즉, 하나님 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생겨버린 인간의 외도이다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존재가 모든 일에 최우선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어제까지 행복했던 에덴은 불행의 장소가 되었다. 아담안에 두려움이 생겼다. 수치심이 생겼다. 죄는 아담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한 대상이 아니었다. 무서운 존재였다.

이때부터가 실재적 불행이다.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마음이 묶여 있는데 행복할 수 있겠는가? 죄는 인간의 마음안에 '두려움'으로 존재했다. 그 두려움은 '혼돈, 흑암, 공허'이다. 그때부터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6. 아픈 결과

결국 첫 사람 아담의 죄는 그의 자녀에게 흘러갔다. 가인과 아벨을 보라. 결국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마음의 핵심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에 '관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아벨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며 가족이라면 절대 살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동생 아벨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성공'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벨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것이 '죄성의 인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신의 성공을 선택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만을 바라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의 관계'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재산, 옷, 먹을 것이 본질이 아니다. 내가 누구와 이것을 누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바로 '삶'이다.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상관없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자신의 삶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 일이 아니다. 관계가 모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7. 가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보호

자신의 성공을 위해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내면은 처참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창세기 4:13-15]

13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의 결과는 바로 처참한 두려움에 묶이는 것이다. 그 영원한 내면의 묶임이 '종의 삶'이다. 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종'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종의 묶임이 바로 가인의 두려움인 것이다.

예) 조선시대의 천민 - 이들의 소망 : 백만금을 주어서라도 신분 상승하는 것이 목적.

이런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가인의 표를 주시어 가인안에 있는 근본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 일방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무도 가인을 하나님의 허락없이 죽일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복과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사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가인을 보호하신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다.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복수, 보복을 히브리어로 '나캄' (נָקַם)이라 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의미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단어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보복을 할 수 있다.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가 심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는 판단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판단한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부터 떠난 신앙의 모습이며,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교회)

8. 허물어야 할 가인의 성

[창세기 4:16-17]

16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아래에 있는 가인이 했던 행동은 성을 쌓는 일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성'의 기능은 보호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라 가인이 직접 쌓은 성이라 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인안에 있는 두려움이 또 성을 쌓았다. 가인의 성은 곧 '자신'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성을 허무는 것이다. 성과 벽은 단절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단절은 내 삶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벽들을 만들었다. 그 벽이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진짜 자유할 수 있다. 내 그물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내 성을 허물고 주님을 따르는 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이다. 그 삶 안에 주어진 자유와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이 아니다.

9. 십자가 후 부활하신 예수 우리 왕

내 모든 두려움의 성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는 위치가 바로 생명의 위치이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영광의 예수, 부활하신 우리 왕을 본다. 그리고 그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권위가 회복된 내 자신 또한 본다.

이제 내 안의 가인의 성을 허물고 진짜 자유를 누리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며 살아가라.

예) 주님의 책망 - 주께 하듯 섬겨라. /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아야 한다. 골3:23